새내기 군민과 함께하는 '장흥 바로알기 투어'

장흥군, 전입자 대상 지역 역사·문화 명소 소개

정착 성공한 선배 귀농인 농장 방문·정보 교류

장흥군은 최근 장흥군에 새롭게 보금자리를 마련한 전입자들을 대상으로 장흥바로알기 투어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29일 열린 장흥바로알기 투어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지역민들과 융화를 통한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장흥군에 전입한 지 1개월 이상 1년 이내 전입자 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동양의 3보림의 하나로 천년고찰인 유치 보림사와 수몰의 역사를 함께한 장흥댐을 시작으로 애국과 충절이 살아있는 민족정기 표상인 안중근의사 위해와 영정을 모신 국내 유일의 해동사 등 장흥군 역사유적지와 주요 관광지를 방문했다.

이어 장흥군에 귀농해 성공적으로 정착한 선배 귀농인 농장을 방문했다.

새내기 군민들은 장흥군에서 지원하는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통해 성공적으로 정착한 사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며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장흥군은 결혼장려금 최대 700만원 확대 지원,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신설을 비롯하여 전입세대 지원, 귀농귀촌귀어민 지원, 청년일자리사업 지원,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있다.

정종순 군수는 "이번 투어를 통해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애향심을 가지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장흥군에오신 것을 다시 한 번 환영하며 모두가 행복한 장흥 만들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최윤희 문체부 2차관, 강진 사의재 방문

'강진에서 일주일 살기'등 강진 관광사업에 큰 관심

지난 10월31일 강진군을 방문한 최윤희 차관이 이승옥 강진군수, 문체부 관계자 등과 함께 일주일살기 참여 푸소 농가를 둘러보고 있다.

강진군의 대표 관광 프로그램인 '강진에서 일주일 살기'가 높은 인기를 누리는 가운데 지난달 31일 최윤희 문화관광체육부 2차관이 사의재를 방문, 이승옥 강진군수와 함께 조만간 프로젝트 마당극을 관람했다.

최윤희 차관은 이날 사의재 저잣거리를 둘러보고 '강진에서 일주일 살기' 참여 농가인 힐링하우스를 방문하는 등 강진의 관광사업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우수 모범 관광사업으로 거론되기도 했던'강진에서 일주일 살기'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되는 사업으로 연말까지 예약이 사전 완료될 만큼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한편 이날 사의재에서는 철저한 방역조치와 함께 강진나이트드림과 조만간프로젝트 할로윈데이 이벤트가 진행되기도 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진도군 '올해의 SNS' 유튜브 부문 최우수상

매주 2회씩 군정 소식·먹거리·특산품 등 영상 제작 전달

진도군이 '제6회 2020 올해의 SNS' 평가에서 기초 지자체 유튜브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지난 10월30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 등이 주관해 전국 자치단체 SNS 채널에 대한 1차 정량평가, 2차 전문가 평가 등을 통해 진도군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군은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 활동을 계량화한 평가와 영향력 지수를 평가하는 1차 정량평가와 콘텐츠의 질, 활동실적 등을 평가하는 2차 심사위원 평가에서 종합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특히 매주 2회씩 군정 소식과 먹거리·볼거리·즐길거리·체험거리 등 관광·특산품 등을 영상으로 제작해 유튜브 등 SNS를 통해 발 빠르게 전달해 SNS 매체로서 영향력과 파급력을 인정 받았다.

진도=조상용 기자

"미남도시락 먹고 대한민국 힘내세요"

해남미남(味南)축제, 경기 안산시에 도시락 전달로 개막

내일·6일에도 광주하남종합복지관·강진의료원 등도 전달

해남미남(味南)축제가 해남특산물로 만든 도시락 전달로 스마트축제의 막을 열었다.

해남군은 2일 경기도 안산시에 해남특산물로 만든 도시락 500개를 전달했다. 도시락전달은 2일부터 7일까지 열리는 해남미남축제의 첫 행사로 코로나 대응의 최일선에서 수고하고 있는 보건의료진에게 도시락을 제공하는'미남축제 전국을 달린다'를 진행했다.

도시락은 올해 처음으로 수확된 햇물김에 전복을 넣어 끓인 해우탕을 비롯해 최고급쌀인 한눈에 반한 쌀로 지은 밥, 명품 해남배추김치, 미네랄의 보고 세발나물, 전복, 민물장어, 고구마, 한우 등 해남의 대표 먹거리로 구성했다.

특히 당일 새벽 명현관 군수와 빅마마 이혜정 요리연구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해우탕과 장어주물럭을 요리하고, 도시락을 싸는 메이킹쇼도 대흥사 온라인 스튜디오에서 진행됐다.

도시락은 곧바로 미남 밥차에 실려 안산시청으로 전달됐으며, 안산시 관내 선별의료기관을 비롯해 국가안심병원 지정기관 등 5개 의료기관에 나눠졌다.

미남도시락 전달은 오는 4일과 6일 광주하남종합복지관과 강진의료원, 해남관내 노인요양시설 등에도 이어져 총 2020개가 전달될 예정이다.

해남미남축제는 올해 온·오프라인이 결합된 스마트 축제로 개최한다.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은 청정지역인 해남의 정성과 맛을 담은 도시락 배달과 함께 박찬일 셰프와 박준우 셰프가 참여하는 온라인 미남푸드쇼, 인플루언서가 전하는 랜선미식여행 등을 축제기간 선보인다.

축제 온라인 영상은 해남군. 공식 유튜브 채널과 홈페이지 www.해남미남축제.com에서 만날 수 있다.

기동취재본부

완도군, 여름휴가 종합 만족 779점 '1위 등극'

올 여름 가장 인기 있었던 국내 최고의 여행지는 어디였을까?

여행 전문 리서치 기관인 컨슈머인사이트의 '2020년 여름휴가 여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완도군이 작년보다 무려 97점이 오른 779점(1000점 만점)을 받아 46개 시·군 중 당당하게 1위를 거머쥐었다.

2016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여름휴가 여행 조사'는 올해 1박 이상, 국내로 휴가를 다녀온 1만 6,035명에게 주 여행지는 어디였는지, 만족도 어느 정도였는지, 추천할 의향이 얼마나 있는지 묻는 조사이다.

완도군은 국내 최초 2년 연속 청정하고 안전한 해변에 주어지는 국제 인증인 '블루플래그'를 받은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과 보길 예송리, 금일 명사십리 등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정비하였다.

아울러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된 생일도의 금곡 해수욕장 주변에 리조트형 관광농원 개장 등 관광 인프라도 마련했다.

특히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의 국내 최초 사전 예약제, '낮엔 해수욕장

명사십리 사전 예약제, 해양치유 등 방역·쾌적한 환경 등 긍정적인 평가

밤엔 문화욕장' 프로그램 운영, 해양치유 프로그램 등 코로나 시대에 맞춰 노력한 점이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폐허로 남아있던 해변의 상가를 철거하여 머슬 비치와 공원을 조성하였으며, 군민과 피서객들의 안전을 위해 3단계 방역 시스템을 한 점이 평가에 큰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3단계 방역 시스템은 1차로 완도의 관문인 완도대교, 2차는 해수욕장 주 출입구에서 발열 체크를 실시하고, 3차는 드론을 활용해 백사장 이용객 밀집도 분석과 분산을 유도하였으며, 이는 7월 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 우수 사례로 보고됐다.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것은 점은 낮에는 해수욕장, 밤에는 문화를 향유하는 '문화 욕장'이라는 트렌드를 선도했다는 점이다.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9일까지 명사십리 해변에서 멀티플렉스 영화관을 운영하였으며, 백사장에 대형 전광판을 설치해 낮에는 군정 홍보, 영상편지, 신청곡 방송 등 이벤트를 추진해 큰 호응을 얻었다.

완도=김광수 기자